

철새 분산이동 막아 AI 확산 방지

도, 주요 도래지 일원에 먹이용 벼씨 23톤 공급
“부득이한 서식지 방문 시 개인위생 주의 당부”

전북도는 철새 먹이주기를 통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나선다.

도는 AI확산 대응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인 동립저수지, 만경강, 동진강, 금강일원에 철새먹이용 벼씨 23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새 먹이주기는 최근 전국적인 AI 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한 철새 이동으로 보고,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 먹이주기’를 통해 철새의 분산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과 AI 확산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철새 관련 행사를 취소하고 지양함에 따라 굶주림의 고통에 처한 야생조류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먹이주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현재 동립저수지, 만경강, 동진강, 금강 일원에 36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군집해 있는 상태로 가창오리등 철새가 가장 많은 고창 동립저수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벼씨 0.5톤씩 주 1~2회 주기적으로 먹이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철새분산방지를 위한 먹이주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철새 먹이주기 추진과 함께 주요철새 도래지의, 방역추진상황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탐조객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새 서식지 접근 자제는 물론, 부득이하게 철새 서식지를 방문할 경우 바람에 깃털, 먼지 등

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특히 분변에 노출됐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 주길 바라고 AI 소멸 시까지 철새도래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용환경녹지국장은 “철새먹이주기를 통해 철새의 분산을 최대한 방지해 철새로 인한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금강호, 만경강, 동진강, 동립저수지 부근 5개 시·군(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농경지를 대상으로 보리경작, 벳짚존치 등의 철새먹이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사업비 9억 9,300만원, 사업규모 8,000ha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